

“신뢰성과 권위 있는 광주일보 든든합니다”

‘광주일보 30년 독자’ 현대가정의학과 조향훈 원장

스크랩하는 아버지 따라 어릴 때부터 접한 신문 ‘오랜 친구’ 호남예술제·마라톤 참여...월간 예방 구독 ‘진 광주일보맨’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자리한 현대가정의학과 조향훈(63·사진) 원장의 하루는 오전 6시에 시작된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배달된 신문을 읽는다. 중앙지와 경제지, 지역지를 끝으로 구독하는 그에게 광주일보는 병원을 개업하던 30여년 전부터 늘 함께 해온 오래된 친구다.

좋은 기사를 스크랩하며 신문을 가까이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신문을 접한 그에게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이다. 특히 지역 소식을 꼼꼼하게 전해주는 광주일보는 결에 두고 수시로 읽는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하지만 활자체인 저는 직접 손으로 신문을 넘겨가며 기사를 읽어가는 게 참 좋습니다. 지역민이 그 지역신문을 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중앙지도 지역 소식 코너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지방신문에 비해 바가 아니에요. 지역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 신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광주일보는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됩니다.”

조 원장은 광주일보의 장점으로 풍부한 콘텐츠와 신뢰성을 들었다.

“무엇보다 광주일보에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권위가 있어 믿음이 갑니다. 다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리면 가끔은 ‘실마 이 내용이 사실일까, 제대로 취재가 된 내용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일보에 실리면 신뢰하게 됩니다. 독자들도 아주 든든하죠.”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이 많은 조 원장은 광주일보가 시리츠 등을 통해 다뤄주고 있기는 하지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고 오류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5·18 문제에 있어 광주일보의 역할을 강조했다.

“5·18을 경험한 수십 만명의 시민이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8을 왜곡하고 나아가 전라도를 비하하며 조롱하는 세력이 아직도 많습니다. SNS에 그들이 올린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 속상할 때가 많아요. 5월 관련 단체나 광주시가



반박하는 자료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신뢰가 가는 콘텐츠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광주일보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 오해를 풀고 진실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조 원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은펜 컬럼 등 다양한 칼럼을 빼놓지 않고 읽는다. 조선대의대 미술관을 만들고 초대회장을 맡을 만큼 미술도 좋아해 문화면 기사를 즐겨 읽으며 책 소개 기사

도 놓치지 않는다. 또 가까이 있지만 알지 못했던 지역 곳곳의 명소 등을 신문에서 접하면 짬내 직접 방문,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그는 오랜 독자로서 신기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던 ‘사냥꾼 이야기’가 연재 중단 됐을 때 아쉬웠다고 웃었다. 또 경제 교육은 어려서부터 시켜야 효과가 있기에 경제 콘텐츠를 보강해 광주일보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광주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 예방도 8년 전부터 꾸준히 구독하고 있다. 그는 광주일보와 인연이 많다. 1980년 전남일보와 전남매일 통합할 당시 광주일보가 진행한 앰블럼 공모에 참여해 3개의 시안을 제출했다. 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호남예술제 미술과 작문 부문에 꾸준히 출전했는데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다며 웃었다. 그밖에 3·1절 마라톤 하프 코스에 5차례 참여해 완주했다.

조 원장은 오는 20일 창간기념일을 맞는 광주일보사에 대한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인생철십고래희(生七十古來稀) 예로부터 사람이 칠십을 살기는 드문 일이라는 뜻)라고 하는데 광주일보가 72주년을 맞았다는 것은 그 세월만큼 지역민을 위해 봉사했다는 말이기도 하기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바랍니다. 애독자로서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김미은 기자 mekim@/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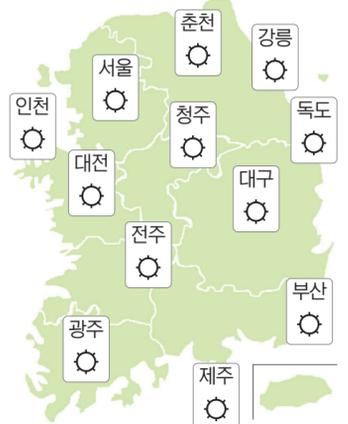
해돋이	05:57	달뜨기	13:53
해질름	19:08	달지기	03:18

마스크 챙기세요

오전부터 황사 짙게 끼겠다.

광주	맑음	11/24	보성	맑음	8/23
목포	맑음	11/19	순천	맑음	11/25
여수	맑음	13/22	영광	맑음	8/20
나주	맑음	8/24	진도	맑음	9/19
완도	맑음	10/25	전주	맑음	10/24
구례	맑음	10/26	군산	맑음	8/21
강진	맑음	9/24	남원	맑음	9/25
해남	맑음	8/22	흑산도	맑음	11/18
장성	맑음	8/24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0.5	0.5		
	면바다(북)	0.5~1.0	0.5~1.0		
남해서부	앞바다	0.5	0.5		
	면바다(서)	0.5~1.0	0.5~1.0		
	면바다(동)	0.5~1.0	0.5~1.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24	10:41	16:32	23:05
여수	12:38	06:03	-:-	18:33

◇ 생활지수

미세먼지	매우 나쁨
------	-------

◇ 주간 날씨

19(금)	20(토)	21(일)
12/26	14/19	14/21
22(월)	23(화)	24(수)
13/22	12/20	11/23



광주 북구, 평두메습지 보전 업무 협약

광주시 북구는 무등산 평두메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난 16일 광주 북구청에서 환경단체 등과 ‘평두메습지 보전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런 협약은 평두메습지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앞두고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독특한 습지 유형과 다양한 생물 서식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북구청과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환경운동연합,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5개 민간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평두메습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관리, 평두메습지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두메습지 생태 모니터링 및 홍보·인식 증진 활동 등에 함께 한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박종철 열사 어머니 정차순씨 별세

전두환 정권 시절 경찰의 고문으로 숨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사진)씨가 17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1세.

유족 등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정씨는 남편인 박정기씨가 2018년 먼저 세상을 등진 후 부산의 자택에서 홀로 지내다 건강이 악화해 2019년 서울의 요양병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의 수



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허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사인을 단순 소크사로 위장하려 했고, 이 사건은 6·10 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정 씨는 아들의 죽음 후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남편을 묵묵히 도우며 뜻을 함께 했다. /연철뉴스



김창숙 부띠끄, 2억 5천만원 상당 여성의류 기탁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노동일·이하 전남 사랑의열매)는 최근 김창숙 부띠끄(총괄이사 최성열)가 전남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2억 5000만원 상당의 여성의류를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전남 사랑의열매에서 열린 전달식은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최성열 김창숙 부띠끄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창숙 부띠끄는 여성의류 5776벌을 기탁

했으며 의류는 전남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김창숙 부띠끄는 그동안 지역사회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남 사랑의열매에 기부를 해 왔다.

최성열 이사는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국제건설, 동강대에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업체인 (주)국제건설(회장 김명기)이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와 산학협력 체결식을 갖고 대학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동강대 제공>

생활 게시판

알림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저소득층, 영세민, 교도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에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기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형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상초등학교 견학,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8일(음 3월 10일 壬子)

☎ 010-9790-8237

子 36년생 불안 요소가 계속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48년생 안 급의 조절이 절실한 시점에 놓여 있다. 60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72년생 소모적인 경쟁보다는 생산적인 화합이 좋다. 84년생 중심을 잡지 않으면 혼돈에 빠지리라. 96년생 구색을 다 갖추다 보면 대의를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행운의 숫자 : 02, 51

辰 37년생 발흥되는 작용과도 같은 이치이다. 49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61년생 행진이 점점 향상될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리자. 73년생 항상 똑같이 보여 왔던 문제가 있다. 85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발전에 도모할 수 있다. 97년생 빛 발자국 물리나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형상이 보일다. 행운의 숫자 : 32, 95

丑 38년생 상황 조정 되거나 훨씬 늘어나는 판세로다. 50년생 지구력의 정도에 따른 편차가 대단히 크다. 62년생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의 의사에 따라 취야 할 형국이다. 74년생 참모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허탈해 할 수도 있는 날이 될 것이다. 86년생 종합적인 진단이 관건이다. 98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 일뿐이다. 행운의 숫자 : 26, 64

寅 39년생 흥은 가고 길사가 접근하고 있느니라. 51년생 결정을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63년생 정도를 걸으면 해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75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는 법이다. 87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 가면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99년생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 행운의 숫자 : 00, 79

巳 40년생 금전에 집착하다 보면 더 큰 의미를 잃게 됨을 감안하라. 52년생 상황에 맞춰서 참신한 변화를 꾀해볼 필요가 있느니라. 64년생 패해지는 것보다는 조용히 덮어 두는 것이 좋다. 76년생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한다면 무탈하리라. 88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00년생 철저히 살핀다면 방안이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2

申 41년생 용기 뿐만 아니라 참신한 발상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53년생 중차대한 정보를 얻게 될지도 모르니 귀를 열어 두자. 65년생 기급적 빨리 시작해야만 겨우 끝낼 수 있는 바탕이다. 77년생 고비를 넘길 줄 알아야겠다. 89년생 호혜 관계에 놓이면서 생산성을 띤다. 01년생 허심탄회한 토로가 물고기를 트게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9, 54

酉 42년생 가랑이에서 비파 소리가 날 정도로 분주하겠다. 54년생 짜임새 있는 구도의 설정이 필수적이다. 66년생 필승의 신념으로 임한다면 반드시 이르게 되어 있다. 78년생 상부상조해 나간다면 당해내지 못할 바가 없다. 90년생 평이함에서 탈피하여 변모를 시도해 보자. 02년생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7, 87

戌 43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55년생 앞으로도 기회는 많을 것이니 연연해하지 말라. 67년생 핵심 정곡을 찌러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79년생 오늘날이 아니니 무리할 필요는 없다. 91년생 기본적인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절실하다. 03년생 현상 유지야말로 상책임을 알고 진중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9, 89

亥 44년생 기존의 형식이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어야 한다. 56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68년생 미리 정보의 수집부터 해줘야 한다. 80년생 용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92년생 일방적이거나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04년생 바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0, 66

45년생 관리에 철저히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57년생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확실한 효과를 본다. 69년생 이면의 가치까지 감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81년생 그럴 듯한 명분에 현혹된다면 곤란해진다. 93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점에 놓여 있다. 05년생 잡다한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핵심 사항에 매진하자. 행운의 숫자 : 21, 81

46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다. 58년생 복합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다. 70년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이룰 수 있다. 82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94년생 잡으려는 것은 안 잡히고 계속해서 슬데없는 것만 들어오는 꼴이다. 06년생 근본적인 원리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길성을 만난다. 행운의 숫자 : 25, 60

35년생 가장 근본적인 사실부터 따져 보는 것이 좋다. 47년생 기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59년생 동시 다발적으로 속속하여 당황할 수 있다. 71년생 해결하기 곤란한 고민거리가 보인다. 83년생 실수한다면 의외의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자. 95년생 관행에 얽매어 남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9, 80